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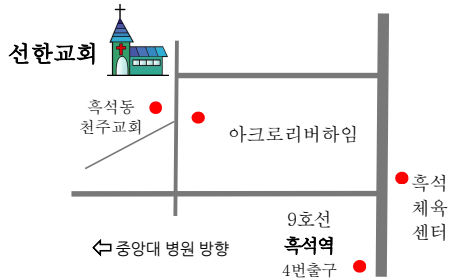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비전워십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안나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장 로	조계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편도선,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양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 천 사 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채세욱 예배
에버이 / 스승 / 목회자 주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 3:23)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일예배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다함께			
교		독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찬	양	과	경	배	199장 (통일찬송가 234장)			
기		도			이태수 장로			
성		경			골로새서 3장 18~23절			
설		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임춘배 목사)			
헌		금			헌금송 : 청년부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주가 일하시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다함께			

2부 체육대회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인도: 임춘배 목사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시편 124편 1~8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안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은 셀별/부서별로 드시기 바랍니다.
-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정용준 목사, 박영근 장로님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어버이 스승 목회자주일

오늘은 어버이·스승목회자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헌신예배

다음 주일(18일) 오후 예배는 여호수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4. 국내선교

2025년도 국내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날짜: 7월 21일(월)~23일(수)
* 장소: 원주 주안예교회(이정필 목사)
* 참가 신청: 국내선교부 전희영 집사

5. 생수제공

체육예배를 위해 김기호 집사님께서 생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섬기는 신앙이 되도록.
--------------	---

찬송 : ‘너 성결키 위해’ 420장
본문 : 창세기 50장 15~21절

말씀 : 야곱이 죽은 뒤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용서가 조건적일 수 있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용서와 믿음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용서는 반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또 한 번 죄를 고백하며 사죄합니다. 그때 요셉은 다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며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고백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시키는 신뢰와 인내의 반복에서 성숙됩니다. 오늘날에도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인내가 반복될 때, 진정한 화해와 관계의 성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믿음은 과거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단지 형제들을 용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해석했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로마서 12장 19~21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실천한 삶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고 돌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단지 복수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용서는 감정을 덮는 행위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긍휼을 회복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용서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반복되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위로와 책임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대신 은혜를 선택하고, 기억의 무게 대신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셉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가정은 결국 사랑과 화해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제 목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골 3:18~23)

서 론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1. 가정과 일터

(1) 가정에게 주신 교훈: ①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18절) ②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19절) ③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20절) ④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21절)

(2) 일터를 위해 주신 교훈: ①종들아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하라(22절) ②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엡6:9) ③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본 론

2. 교훈

- (1) 지금 우리 가족에게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 (2) 지금 직장에서 내가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 (3) 나는 모든 일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결 론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바로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이태수 장로	윤호중 장로
2부 예배 헌금	안혜진, 박대수 집사	윤국로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여호수아회
주 방 봉 사		요셉회

매일 Q.T.		언약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	날짜 : 5월 12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본문	민수기 22:1~14		
말씀요약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들이 유숙하는 동안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은 복 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목상질문 1	모압 왕 발락의 두려움 22:1~6 강성한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락은 어떤 계락을 세웠나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나는 누구를(무엇을) 의지하나요?		
목상질문 2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22:7~14 하나님이 발람에게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보실까요?		
한절목상	민수기 22장 6절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모압 왕 발락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자기중심주의는 상대가 자신보다 잘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번영에 집착해 잘못된 확신으로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복과 번영만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은 비참한 결말을 초래합니다 (렘 48장). 성도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경계하고 다 함께 잘되는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제 미래를 제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소서. 순전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대로 따르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혈기로 인한 불순종의 징계”	
찬양과 기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묵상 나눔	하나님은 우리가 혈기를 버리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야기 속으로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혈기가 올라올 때는 어떤 순간입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성도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답변했습니다. 그중 1위는 놀랍게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 은혜를 가족들과 나눴을 때, 당신부터 잘하라는 핀잔을 들었을 때’,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주차요원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은혜받고 열심히 봉사한 내가 아니라,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 받는 것을 보았을 때’ 등이 있었습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를 치밀하고 집요하게 공격해 분노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도록 현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나누기	민수기 20:1~13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후 가데스(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한 징계로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 (14:26~33)이 약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가데스는 신 광야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약 40년이 흐른 때에 출애굽 1세대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출애굽한 후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에게 불평했듯이(출 17:1~3), 약 40년 후 물이 없는 상황에 놓이자 애굽 2세대 또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뜻을 지닌 ‘가데스’는 본래 오아시스 지역으로, 당시에는 가뭄 때문에 물이 마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관찰과묵상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과 달리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으며, 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10~12절)
적용하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그 책임을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출애굽 때부터 백성을 헌신적으로 이끈 이들의 노고를 잊고, 자신들을 죽게 한다면 원망을 쏟아 냈습니다. 이에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언행을 하고 맙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훼손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자기 백성을 위해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혈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 의지	날짜 : 5월 16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본문	민수기 22:13~26		
말씀요약	발락이 이스라엘의 끝만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 일곱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발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묵상질문 1	발락의 두 번째 제사 22:13~17 발락이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악한 도모를 막아주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발람의 두 번째 예언 22:18~26 발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나요? 하나님의 축복과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나요?		
한절묵상	민수기 23장 21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많은 최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찾지 않습니다. 허물과 반역보다 큰 인자와 용서가 그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는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임마누엘'로 보내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자와 용서를 증명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 제 허물에도 결코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저주를 쏟아 낼지라도 끝까지 저와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제 삶의 왕으로 모시는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욕심에 끌리는 걸음, 막아서시는 하나님	날짜 : 5월 13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본문	민수기 22:15~30		
말씀요약	발락이 다시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자, 발람은 하나님 뜻을 더 알아보겠다 합니다. 결국 발람이 나귀를 타고 그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세 번 피하자, 발람이 그때마다 나귀를 때립니다. 이에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 항변하게 하십니다.		
묵상질문 1	발락이 보낸 두 번째 사신 22:15~20 발람이 무슨 이유로 사신들을 그 밤에 유숙하게 했을까요? 물질과 명예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발람과 나귀 22:21~30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무엇을 깨우치려 하셨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한절묵상	민수기 22장 27~28절 탐심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발락이 보낸 자들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동물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결코 순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둬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인간의 엇나간 자유 의지조차도 허용하심은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제 뜻을 이루려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왔음을 회개합니다. 제 욕심을 반영한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선택하게 하소서.		

매일 Q.T.		사악한 길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	날짜 : 5월 14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75장		
본문	민수기 22:31~40		
말씀요약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관들과 함께 가되 자신이 이르는 말만 하라고 명합니다. 발락의 환대에도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다고 발락에게 전합니다.		
목상질문 1	발람의 깨달음과 뉘우침 22:31~35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목격한 후, 발람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가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이킬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발람을 영접하는 발락 22:36~40 발락이 발람을 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민수기 22장 34절 '죄를 짓다(범하다)'라는 말은 '표적에서 빗나가다, 발을 잘못 내딛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발람의 말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에 불과합니다. 발람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재물과 명예를 향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 유혹에 빠져 욕심을 채우는 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 뜻을 대언하는 불가항력적 축복	날짜 : 5월 15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	민수기 22:41~23:12		
말씀요약	발락이 이스라엘의 진이 보이는 바알 산당에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 일곱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축복하는 예언을 전하자, 발락이 항의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목상질문 1	발락의 제사 준비 22:41~23:6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이 발람을 데려간 곳은 어디인가요? 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목상질문 2	발람의 첫 번째 예언 22:7~12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게 허물과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민수기 23장 3~4절 세상에 미련을 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 앞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 발락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일곱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세상에 미련을 둔 발람은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